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전북교육 예산 4조5022억원

올해보다 1765억원 감소
재정 여건 고려 재원 배분
기초학력 함양· 해외 연수
교육복지· 에듀케어 등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
내달 도의회 예산안 심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했다.

5,49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학교정보화기자재 보급 및 관리, 전북에듀케어 학생 해외연수 등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다.

이에 도교육청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통·폐합을 실시하고, 또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765억원(3.8%) 감소한 4조5,022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고 했다.

중점적으로 편성된 항목으로는 △에듀케어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 함양과 학력신장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교과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에듀케어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 이상곤 예산과장이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1,671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스마트 칠판 보급 등 에듀케어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437억원, 에듀케어 활용 수업개선 콘텐츠 구입 등 스마트 교육 지원에 174억원, 시교육기반 조성 및 SW교육 활성화에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함양을 위해 289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원, 미래형 교과과정을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원, 교과과정 다양화를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에 13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9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입학지원금 136억원,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129억원,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118억원 등 전북에듀케어 지원에 385억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교복 구입비·학습준비물 구입비로 272억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

을 위해 28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289억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17억원, 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33억원, 학교 내·외 통학로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16억 원, 학교 CCTV개선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을 1,5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288억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58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40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해외 협력 강화 中 후난성·베이징 방문

오늘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공공외교활동 전개
마오 후난성장 등과 만나 교류·협력 강화 협의
오늘 베이징서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 이어가

전북도가 공공외교의 영역을 확장하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 탐색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방문단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를 비롯해 후난성을 각각 방문해 경제·문화·인적분야 등의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방문단은 중국 후난성 최고의 국가경제개발구를 방문해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 발전상을 그려본 뒤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관계를 넓히기 위해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마오 웨이밍 중국 후난성장과 장자제시 당서기를 잇따라 만나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사진 2면>

후난성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 교역액이 45억2,725만 달러로, 한국이 후난성의 4대 교역대상국에 해당되고 있어 전북도측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후난성과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 상생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난성 방문 기간동안, 참사시 특설 경기장에서 9개국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되는 글로벌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인 'ITF 2023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회 운영상황과 국내 출전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한중 과학기술산업 기술교류회(한국혁신기업 K-Demo Day)' 행사에도 참석해 수소와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발전 속도와 기업들의 기술혁신 수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김관영 도지사 일행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베이징시로 외교의 장을 옮겨 아주경제발전협회장을 비롯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중국 이차전지 회사 관계자 등을 만나 투자유치와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김 지사는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대외 우호·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전북도의 공공외교활동이 더욱 내실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관광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베이징CCG영화관에 전북관이 개관되며, 전북대학교와 중국 후난사범대는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재훈 기자

루게 되는 글로벌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인 'ITF 2023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회 운영상황과 국내 출전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한중 과학기술산업 기술교류회(한국혁신기업 K-Demo Day)' 행사에도 참석해 수소와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발전 속도와 기업들의 기술혁신 수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김관영 도지사 일행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베이징시로 외교의 장을 옮겨 아주경제발전협회장을 비롯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중국 이차전지 회사 관계자 등을 만나 투자유치와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김 지사는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대외 우호·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전북도의 공공외교활동이 더욱 내실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관광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베이징CCG영화관에 전북관이 개관되며, 전북대학교와 중국 후난사범대는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재훈 기자

고창에서만 4번째 림프스킨 발병

해리면 한우농가서 감염의심 소 확진 판정

지난 10일 고창군에서 발생한 림프스킨 감염의심 한우가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 5번째 림프스킨 확진자가 고창에서만 4번째 림프스킨이 발병했다.

전북도는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가에서 피부 병변이 보인다 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한우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림프스킨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9일 도내 2번째 발생 농장과 0.6km 떨어져 있고, 총 93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소의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내 분뇨의 외부배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휴열근중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